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8	03. 15	03. 22
대 표 기 도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이에준 형제
성 경 봉 독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이에준 형제

교회소식

3월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갑시다!

-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 3.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2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7 : 7 - 9(구p1281) (Amos 7:7~9)	김정규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모스 7장은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때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보다 감정과 형편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7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와 불,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이십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심판은 잠시 유보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자체는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되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다림줄 환상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림줄은 기울어짐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먼저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또한 벨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과 제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제도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정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자기 합리화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기준입니다. 다림줄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지만,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청년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의 다림줄 위에 다시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실제 삶에서 무엇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지 나눠보세요.
2.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선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